

KIA 습지보전 중요성 알릴 '람사르 데이' 개최

국내야구 | 수정 2018-07-17 13:59:30 | 입력 2018-07-17 13:59:33



KIA 양현종이 7일 수원 KT전 2-0 승리후 김기태 감독과 하이파이브 하고 있다. 배우근기자
kenny@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장강훈기자] KIA가 습지 보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람사르 데이'를 개최한다.

KIA 17일 광주-KIA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릴 삼성전을 '람사르 데이'로 지정했다. 람사르 데이는 KIA와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가 함께 습지 보전에 관한 국제 협약인 '람사르협약(Ramsar Conventidn)'과 습지 보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는 이날 관객들에게 기념 에코백과 부채 등을 나눠주고, 습지 보전과 국제협력, 그리고 2018년 세계습지의 날 주제인 '습지;지속가능한 도시의 미래, 삶에 생기를 불어넣는 도시 습지'에 대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날 시구는 습지 연구에 공헌한 것을 인정 받아 국내 최초로 람사르상을 수상한 부산대학교 주기재 교수가 하고, 우리나라 겨울 철새인 독수리 보호활동을 20년 넘게 펼치고 있는 김덕성 전 교사가 시타자로 나선다.

한편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는 2008년 한국에서 열린 제10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 개최를 계기로 설립된 전 세계 4개의 람사르지역센터 중 한 곳으로, 전남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안에 자리잡고 있다.

zzang@sportsseoul.com